



고영선 이사장 봉사활동



전국 쪽방촌 화재안전 봉사활동 실시

KFPA는 전국의 쪽방촌 11개 지역 219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5월 28일(토) 대전, 대구, 부산 등 3개 지역 쪽방촌 141가구에 대해, 6월 18일(토)에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 쪽방촌 441가구에 대해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벽 하나 건너 단칸방으로 된 가구가 몰려 있는 쪽방촌은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화재 시 전체로 확산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화재안전 사각지대이나, 화재안전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KFPA는 가구별로 난방·취사용 화기시설과 전기시설 등에 대해 화재위험을 확인하고 고쳐주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소화기 및 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생활필수품도 전달하였다. 또한 거주자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만큼 화재발생 원인 제거에 집중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만약 화재가 나더라도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주자들에게 화재 시 대처요령도 일일이 알려주었다.

한편, KFPA는 사회 취약시설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전국의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중 화재안전에 특히 취약한 245개 시설과 11개 지역 쪽방촌은 2년 반 주기로, 노인노양시설 642개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반복해서 화재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 시행

KFPA는 2011년 6월부터 『KFA 화재 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는 KFPA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

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이용객들이 해당건물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및 이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KFPA 각 지부별로 추천한 건물에 대해, 관리시스템, 화재폭발위험, 건물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전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1차로 전국 총 69개 건물이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에게는 KFPA가 실시하는 방재교육비 및 위험관리 정보회원 가입비 할인, KFPA의 기술지원 요청 시 우선 지원,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KF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6월 21일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에서 우수건물 소유주, 손해보험 및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안전 우수건물 주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전국 6개 지역에서도 6월 22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KFPA의 고영선 이사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KFPA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설립목적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우수건물은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알려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화재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화재안전 우수건물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인증 관련 평가 시 KFPA의 인정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